

#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에 대한 재검토

박재연\*

## 1. 문제 제기

본고는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이른바 SEA 구문)’<sup>1)</sup>으로 불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재검토하고 이들 구문의 일부는 보조용언 구문이 아닌 인용 구문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 (1) 가. 영화는 아무래도 울고 있지 않나 싶다.
  - 나. 영화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다. 영화는 내일 학교에 안 가는가 보다.

(1가)의 ‘싶-’ 구문과 (1다)의 ‘보-’ 구문은 보조용언을 다루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임흥빈(1985)에서 그 통사적 공통점이 주목된 바 있다. (1)의 구문들을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 구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통사적 특성을 기술한 본격적인 논의는 엄정호(1990)인데 이 논의의 기본 정신은 김지홍(1993), 이선웅(1995)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1)의 구문들의 통사적 특성이 많이 밝혀진 것은

---

\* 박사과정

1) ‘SEA(sentence ending auxiliary) 구문’이라는 명명은 엄정호(1990)의 것이다. 본고는 이들이 보조용언 구성이라는 것을 일부 부정하려 하기 때문에 이 용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이하에서도 종결어미에 ‘싶-, 하-, 보-’가 통합된 구문을 단순히 가리키는 의미로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이지만 이들을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과 함께 다루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발견된다.<sup>2)</sup> 내포문으로 보조적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 아닌 종결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것부터가 다른 보조용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현상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조용언이 특정 내포문 어미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1)의 용언 중 특히 ‘싶-’과 ‘하-’가 취하는 종결어미의 종류는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sup>3)</sup>

그런데 (1)의 구문들에서 인용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 권재일(1986)에서는 기존의 보조용언과 계사 ‘이-’를 ‘의존동사’라는 이름으로 묶어 논의하면서 (1)의 구문들을 인용의 성격을 가지는 ‘갖춘 내포문을 안은 의존동사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이필영(1995 : 50, 각주 60)에서는 SEA 구문이 생각을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 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며 임홍빈·장소원(1995 : 320)에도 ‘싶-’과 ‘보-’의 SEA 구문의 내포문이 인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기대어 우리는 (1)의 예들이 인용 구문으로서 갖는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들을 인용 구문의 일종으로 다룰 수 있다면 굳이 이들을 SEA 구문, 즉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이라는 특이한 구성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SEA 구문의 성격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싶-’ 구문을 다룬다. 2.1.에서는 ‘싶-’ 구문의 통사적 행동이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의 것과 상이함을 보이고 이를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에서는 ‘싶-’ 구문이 인용 구문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유표적 성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하-’ 구문과 ‘보-’ 구문을 다룬다. 3.1.에

2) 손세모들(1996 : 96~100)은 몇 가지 통사적·의미적 근거를 들어 ‘싶-’ 구문과 ‘보-’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3)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것만도 ‘-나가(-나), -르까, -지, -다, -구나’ 등 다섯 개에 이른다. 여기서 ‘-나’는 ‘-나가’에 선어말어미 ‘-느’가 통합된 ‘-는가’가 줄어든 꼴로 파악되므로(이현희 1982 : 95),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우리는 이들을 별개의 어미로 취급하지 않는다.

서는 ‘하-’ 구문이 ‘하-’를 인용 동사로 하는 인용 구문과 큰 차이를 갖지 않음을 보인다. 3.2.에서는 ‘보-’ 구문이 ‘싶-’과 ‘하-’의 인용 구문과 통하는 면이 있으나 이미 문법화가 진행된 보조용언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4장을 결론으로 삼아 논의를 요약하고 미진한 점을 제시한다.

## 2. 종결어미+‘싶-’ 구문

### 2.1. 종결어미+‘싶-’ 구문과 보조용언 구문

‘싶-’은 전통적으로 보조형용사로 다루어져 왔다. 최현배(1937/55 : 530~538)에서 ‘싶-’은 “바람 도움 그림씨”와 “미름 도움 그림씨”의 목록에 모두 올라 있는데 전자는 ‘-고 싶-’ 구성을, 후자는 ‘-ㄴ가 싶-’ 구성을 가리킨다. ‘싶-’은 대당되는 본용언이 없는 보조용언으로서도 특이성을 인정받아 온 것이었기에, SEA 구문을 이루는 ‘싶-’도 자연스럽게 보조용언으로 취급되었다. 실제로 SEA 구문의 ‘싶-’은 선행하는 절에 대하여 강한 통사적 의존성을 가져서 어떠한 문맥에서도 단독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일반적인 구적 요소를 논항으로 취하는 일도 없다. 더욱이 ‘싶-’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휘적 의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 ‘싶-’의 SEA 구문은 일반적인 보조용언과 상이한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임흥빈·장소원(1995 : 314)에서는 보조용언 구성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 바 있다.<sup>4)</sup>

- (1) 가. 어휘 선택 조건 :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어미에 대하여 강한 어휘적 제약을 가진다.
- 나. 비개재성 조건 :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일반적 보조사를 제외한 보조사 ‘서’ 및 일반적 어휘 요소가 개재되기 어렵다.

---

4) (1)이 보조용언 구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일 수는 없으며 논자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SEA 구문과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의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 다. 비분리성 조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분리된 위치에 나타날 수 없으며 각각이 독립된 작용역이 될 수 없다.<sup>5)</sup>
- 라. 비교체성 조건: 보조용언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항목으로 교체하기 어렵다.
- 마. 선어말어미 제약: 보조용언 구성에서 본용언의 어간에는 선어말어미의 연결이 상당한 정도 제약된다.
- 바. 생략 불가능성 조건: 보조용언은 생략되기 어렵다.

이 중 '싶-'의 SEA 구문이 준수하는 것은 (1나)의 비개재성 조건과 (1다)의 비분리성 조건의 일부(앞 부분)이다.

- (2) 가. \*철수는 이제 잠이 들었나 정말 싶다.
- 나. \*철수는 이제 잠이 들었나 안 싶다.
- 다. \*나는 싶다, 철수가 이제 잠이 들었나.
- (3) 가. \*철수는 학교에 가 정말 보았다.
- 나. \*철수는 학교에 가 안 보았다.
- 다. \*철수는 보았다, 학교에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싶-'과 내포문 사이에는 어떠한 언어 형식도 개재될 수 없으며 내포문이 우측으로 도치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3)에서 보인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성의 통사적 행동과 일치한다.<sup>6)</sup>

그러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서는 '싶-'의 SEA 구문은 보조용언 구문으로서의 행동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sup>7)</sup>

5) '비분리성 조건' 중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분리된 위치에 나타날 수 없으며"는 '비개재성 조건'과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각각이 독립된 작용역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은 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보조용언 구문에만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예컨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에서의 '보이-'는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정말 보인다.",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는) 안 보인다.", "보인다,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등의 문장은 거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이-'도 일면 의존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비분리성 조건과 비교체성 조건을 보조용언 검증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간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논의의 편의상 (1가)의 '어휘 선택 조건'을 맨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싶-’의 SEA 구문은 내포문과 모문이 각각 독립된 작용역이 될 수 있다.

- (4) 가. 스코어가 2:0이 되었을 때 이겼다 싶었다.  
나. 스코어가 0:2가 되었을 때 오늘은 못 이기겠다 싶었다.  
다. 스코어가 2:0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겼다 싶지는 않았다.
- (5) 가. 철수는 밥을 먹어 버렸다.  
나. 철수는 밥을 안 먹어 버렸다.  
다. 철수는 밥을 먹어 버리지 않았다.

(4나)은 부정 부사 ‘못’이 내포문의 ‘이기-’만을 부정할 수 있음을, (4다)은 ‘-지 않-’에 의한 장형 부정이 ‘싶-’만을 부정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반면 (5)의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5나)의 부정 부사 ‘안’이 ‘먹어 버리-’ 전체를 수식하거나 본용언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5다)에서 보듯이 ‘버리-’에 장형 부정이 실현되어도 그 작용역은 ‘먹어 버리-’ 전체가 되지, 보조용언 ‘버리-’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둘째, SEA 구문의 ‘싶-’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항목으로 교체될 수 있다(손세모들 1996: 91).

- (6) 가. 차라리 잘됐다 싶었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나. 차라리 잘됐다 생각됐지만/여겼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 (7) 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 보았지만 연락이 안 된다.  
나. \*계속해서 전화를 해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

(6)의 ‘싶-’은 ‘생각되-, 여겨지-’등의 동사로 대체되어도 심각한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sup>8)</sup> 이는 (7)의 ‘시도’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 ‘보-’가 ‘시도하-’로 교체되었을 때 비문법적이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셋째, ‘싶-’ 구문의 내포문에는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상당히 자유롭다(엄정호 1990: 20, 임홍빈·장소원 1995: 320).

---

8) ‘싶-’이 ‘여겨지다, 생각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직관은 임홍빈(1985-1998: 104)에도 보인다.

- (8) ㄱ.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ㄴ. 이제 곧 도착하겠지 싶은데 소식이 없다.  
 ㄷ. 할아버지께서 오시는가 싶었는데 오시지 않았다.  
 ㄹ. 부자집 잔치에 먹을 것 더 없더라 싶어 아예 갈 생각을 안 했다.
- (9) ㄱ. \*영희는 몰래 학교에 갔어 보았다.  
 ㄴ. \*나는 집에 있겠고 싶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셔 봤다.  
 ㄹ. 할아버지께서는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셨다.

(8ㄱ~ㄹ)은 ‘싶-’의 내포문에 차례로 선어말어미 ‘-었-, -겠-, -시-, -더-’가 통합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의 내포문에는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상당히 제약되며(9ㄱ, ㄴ, ㄷ), 선어말어미는 대개 보조용언에 붙는다는 것과 대조적이다(9ㄹ’).

넷째, ‘싶-’의 SEA 구문에서 ‘싶-’의 생략 불가능성은 일반적인 보조용언의 생략 불가능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sup>9)</sup>

- (10) ㄱ.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ㄴ. 차라리 잘됐다.  
 (11) ㄱ. 나는 영화를 때리고 말았다.  
 ㄴ. 나는 영화를 때리고.

(10ㄱ)에서 ‘싶었다’를 생략한 (10ㄴ)은 (10ㄱ)과 엄밀히 말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싶-’의 생략 불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11)에서 보이는 보조용언의 경우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11ㄴ)은 (11ㄱ)과 같은 의미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으며 (11ㄴ)에서 보조용언 ‘말-’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에 비해 (10ㄴ)은 문장의 앞뒤에 인용의 따옴표를 상정한다면 (10ㄱ)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일정한 문맥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10)’ ㄱ. …… 그는 이제 단념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이상 노력해

9) 임흥빈·장소원(1995: 320)에서도 내포문에 적합한 억양이 걸리면 ‘싶-’이 생략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볼 길은 없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

ㄴ. …… 그는 이제 단념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이상 노력해 볼 길은 없었다. (“)차라리 잘 됐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10'ㄱ)과 (10'ㄴ)은 심각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후술되겠지만 ‘싶-’의 내포문은 내적 사유에 관한 것인데 소설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지문과 등장인물의 내적 사유가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싶-’의 내포문이 보조용언의 내포문과는 달리 문장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의 조건에 대한 검증 이외에도 ‘싶-’의 SEA 구문이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과 통사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싶-’의 SEA 구문은 재구조화에 의한 단문 효과<sup>10)</sup>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부정극어의 작용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2) ㄱ. 오늘은 아무도 학교에 안 오고가 싶었다.  
      ㄴ. \*오늘은 아무도 학교에 오고가 싶지 않았다.  
(13) ㄱ. 아무도 그 약을 안 먹어 보았다.  
      ㄴ. 아무도 그 약을 먹어 보지 않았다.

부정극어가 항상 자신의 절 내부에 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12ㄴ)에서 ‘아무도’가 모문의 부정어와 호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문장이 단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복문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11)</sup> (13ㄱ)에서 보인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은 단문성을 발휘하여 부정극어가 모문의 부정어와도 호응할 수 있다.

---

10) 여기서의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최현숙(1988)의 개념이며 임동훈(1991: 76)과 이선웅(1995: 49)에서도 이를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다.

11) 김지은(1997: 140~142)에서는 문장 부사의 분포와 부정 극어의 작용역, 접사 ‘들’의 분포와 관련한 증거를 들고 ‘싶-’ 구문의 통사적 행동이 일반적인 복문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구조화에 의한 단문 효과와 관련하여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싶-’의 SEA 구문이 내포문 주어와는 별도로 모문의 주어를 외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선웅 1995 : 53, 김지은 1997 : 140).

- (14) ㄱ. 나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으시나 싶어 밖으로 나가 보았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영희가 아픈가 싶으셨는지 집으로 전화를 거셨다.

(14ㄱ)에서 내포문의 주어는 ‘어머니가’이고 모문의 주어는 ‘나는’이다.<sup>12)</sup> 이는 (14ㄴ)에서와 같이 ‘싶-’에 통합된 선어말어미 ‘-시-’가 ‘할아버지께서는’와 일치하고 있는 데에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싶-’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이 가지는 단문 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싶-’ 구문의 내포문의 문미에는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고 내포문과 ‘싶-’ 사이에 휴지(pause)가 개재될 수 있다.<sup>13)</sup>

- (15) ㄱ. 영희가 집에 없나(↘) # 싶어서 그냥 갔지.  
 ㄴ.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 #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16) ㄱ. \*철수는 숙제를 후딱 해 # 버렸다.  
 ㄴ. \*영희는 종이학을 접어 # 보았다.  
 (↘은 억양을, #은 휴지를 보인 것이다.)

(15)는 종결어미 ‘-나’와 ‘-구나’에 걸릴 수 있는 특유의 억양이 SEA 구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16)에서

12) 이 때의 ‘나는’이 주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임흥빈(1985=1998 : 104)에서처럼 발화 상황 범주와 상황공범주를 상정하여 ‘싶-’ 구문을 “(나는) (상황이)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 정도로 이해한다면 ‘나는’은 주어라기보다는 발화 상황 속의 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이건 주제이건 (14ㄱ)의 ‘나는’이 내포문의 요소가 아니라 모문의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13) 엄정호(1990 : 9)의 SEA 구문에 대한 정의는 “SEA 구문은 종결어미 다음에 다시 동사가 나와 한 문장을 이루는 구문으로 선행문의 종결어미와 SEA 동사 사이에 휴지를 제외한 어떠한 요소의 개재도 허용하지 않는다.(강조-필자)”이다. 즉 SEA 구문에 휴지가 개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에서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린다거나,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휴지가 개재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휴지가 개재된 발화는 보조용언 구문이 아닌 접속문으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재구조화의 결과 하나의 복합서술어처럼 행동하여 합성동사와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이선웅 1995 : 20~30), 휴지와 수행 억양이 비교적 자유롭게 개재되는 ‘싶-’의 SEA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싶-’의 SEA 구문에서는 간격화(gapping)가 가능하다.

- (17) ㄱ. 영화는 서울 가서 잘 살겠지 싶었다. 철수도 성공했겠지 싶었다.
- ㄴ. 영화는 서울 가서 잘 살겠지, 철수도 성공했겠지 싶었다.
- (18) ㄱ. 영화는 밥을 먹어 버렸다. 철수는 그냥 굶어 버렸다.
- ㄴ. \*영화는 밥을 먹어, 철수는 그냥 굶어 버렸다.

(17ㄴ)은 ‘싶-’의 SEA 구문에서 간격화에 의한 내포문 병렬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이는 (18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에서 간격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싶-’의 SEA 구문을 보조용언 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싶-’이 내포문 어미에 대하여 어휘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SEA 구문의 ‘싶-’은 (1가)의 어휘 선택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

- (19) ㄱ. 도대체 영화는 언제 철이 드나 싶다.
- ㄴ. 병우에게 가 볼까 싶었으나 그것도 마땅치가 않았다.(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 ㄷ. 드디어 철수를 만나는구나 싶어 뛰어 나갔다.
- ㄹ. 이 시간에야 집에 들어왔겠지 싶어 전화를 걸었다.
- ㅁ. 벌써 잠이 들었겠다 싶어 그냥 발길을 돌렸다.

(19ㄱ~ㅁ)은 차례로 엄정호(1990), 이선웅 (1995)에서 ‘싶-’의 내포문 종결어미로 지적된 바 있는 ‘-ㄴ가(-나), -ㄴ까, -구나, -지, -다’ 등 다섯 개

의 종결어미가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싶-’ 구문의 내포문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 (20) 가. 이러다가 숙제를 언제 다 할지 싶다.  
 나. 아 뜨거(워)라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던 거예요.  
 다. 그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랴 싶은 생각으로 그냥 승락을 해 버렸다.  
 라. 이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지 싶어 모진 말을 던져 놓고 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마. 그 소리 듣고 이거 큰일났네 싶어서 얼른 뛰어 왔지.  
 바. 그제야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걸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20가~바)은 차례로 ‘-르지, -어라, -랴, -어야지, -네, -르걸’이 ‘싶-’ 구문의 내포문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에서 보인 ‘-나가(-나), -르까, -구나, -지, -다’ 등과 마찬가지로 화자 스스로의 독백에 사용될 수 있는 어미라는 것이다.<sup>14)</sup> 그런데 속성상 혼자말을 표현하는 종결어미가 이끄는 문장이 아니더라도 문맥상 혼자말이나 내적인 사유를 표현하는 문장일 경우에는 ‘싶-’의 내포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21) 가. 덕순이는 그런 겁나는 말을 언제 했느냐 싶게 배시시 웃고 있었다.(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나. 그 일이 있는 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싶은 생각에 보파리를 싸 버렸던 것이다.  
 다.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싶은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럴 용기는 생기지 않

14)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독백의 문장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에 대하여서는 줄고(예정)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엄정호(1990: 91)에서는 ‘-나가, -르까, -나, -구나, -지, -다’가 첫째, 단독적 장면에서 쓰일 수 있으며, 둘째, 인식 양태의 표현이며, 셋째, 주관적 표현이거나 적어도 주·객관성에 대해 무표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은 대체로 정당한 것이지만 첫째 조건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인식 양태에 대하여 무표적인 ‘-어라, -랴, -네, -어야지, -르걸’ 등도 ‘싶-’ 구문의 내포문 어미가 될 수 있으며, 주관적 표현에 대비되는 객관적 표현이라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았다.

- ㄹ.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따뜻한 이불 속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다.
- ㄷ. 하이힐을 신으면서도 “난 그럴 리 없어” 싶은 여성이라면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는지 볼 것.(동아일보 99.10.27 기사)

(21ㄱ~ㄷ)은 차례로 ‘-느냐, -어라, -자, -는데, -어’를 취한 ‘싶-’ 구문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느냐, -어라, -자’는 차례로 가장 무표적인 해라체의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이며 ‘-는데, -어’는 반말체 종결어미인데 굳이 혼자말과 관련을 맺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지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내적인 사유를 표현하는 문장에 사용되면서 ‘싶-’의 내포문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싶-’의 의미와 관련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고 싶-’의 ‘싶-’은 ‘희망(혹은 바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SEA 구문의 ‘싶-’은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다루는 일이 종종 있어 왔으나(차현실 1984, 성낙수 1987, 박진호 1998 등) (21)의 예는 SEA 구문의 ‘싶-’이 반드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추측’의 의미는 ‘싶-’의 의미가 아니라 내포문의 의미인 것이다.<sup>15)</sup> 즉 ‘싶-’의 내포문에 빈번히 사용되는 ‘-니까, -르까, -겠지, -겠다, -겠구나’ 등이 추측과 유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통합된 ‘싶-’의 SEA 구분도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다음 예도 ‘싶-’의 SEA 구분과 평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ㄱ.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싶어 연락을 안 한 것 뿐이야.

---

15) ‘추측’이나 ‘희망’의 의미가 ‘싶-’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김홍수(1983:2장)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중세국어의 ‘식브-’를 다루고 있는 김정아(1985:292)에는 ‘-고져 식브-’와 ‘-니까 식브-’에서 보이는 ‘희망·의도’와 ‘불확실’의 의미는 ‘식브-’의 의미가 아니며 ‘식브-’는 견해를 표시하는 사유동사로서 그 자체로서는 어떤 태도의 사유행위인가를 표시하지 않는 중립적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있다. 손세모돌(1996:92)에서도 ‘추측’의 의미는 ‘싶-’과 선행어미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의미일 뿐이라고 하였다.

ㄴ. 나는 제발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싶었다.

(22ㄱ)은 ‘-거니 싶-’ 구문을, (22ㄴ)은 ‘-었으면 싶-’ 구문을 보인 것이다. ‘-거니’는 “옹거니!”, “좹거니!”의 예를 제외하면 단문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용법을 갖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용법도 알지 못한다. 내적 사유를 나타낼 수 있는 어미임에는 틀림이 없다. (22ㄴ)의 ‘-었으면’은 과거의 선어말어미 ‘-었-’과 조건의 연결어미 ‘-면’이 통합된 반사실적 가정 표현이다. ‘-었으면’이 이끄는 내포문은 역시 내적 사유와 관련된 혼자말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처럼 기능한다.<sup>16)</sup>

우리의 관찰이 정당하다면 ‘싶-’의 SEA 구문은 내포문 종결어미에 특별한 어휘적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적인 사유와 관련된 문장이기만 하면 어떤 문장이나 내포문에 올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싶-’이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조용언과 갖는 공통된 속성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싶-’의 SEA 구문은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과 함께 다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구문의 통사적 지위는 무엇으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재구조화를 허용하지 않는 복문이고, 모문 동사가 다른 어휘항목으로도 대체되며, 내포문에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자유롭고, 수행 억양이나 휴지가 개재되기도 하며 다양한 내포문 종결어미를 취할 수 있는 ‘싶-’의 SEA 구문은 다른 아닌 인용 구문이라고 생각한다.<sup>17)</sup> 좀더 정확히는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싶-’ 구문이 인용 구문으로서 가지는 특성에 관

16) 박진호(1998: 156)에서도 ‘-었으면 싶-’ 구문이 의미상으로는 ‘-고 싶-’ 구문과 유사하지만 통사적 특징은 SEA 구문의 ‘싶-’(이 논문에서는 “추측의 싶-”이라고 부름)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고 있다.

17) 인용 구문과 보조용언 구문이 서로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지, 아니면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인용 구문의 내포문을 명사절로, 보조용언 구문의 내포문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믿음만한 근거가 있다면, 구조적 차이를 이용한 검증도 ‘싶-’ 구문의 통사적 지위를 확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sup>18)</sup>

## 2.2. 종결어미+ ‘싶-’ 구문의 인용 구문적 성격

‘싶-’ 구문은 인용 구문으로서도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인용 구문의 성격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싶-’의 SEA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던 전통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싶-’ 구문이 ‘유표적인 보조용언 구문’으로 기술되는 것보다 ‘유표적인 인용 구문’으로 기술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싶-’의 SEA 구문을 인용 구문이라고 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23) 가. ‘싶-’ 구문이 인용 구문이라면 직접 인용 구문인가 간접 인용 구문인가?  
 나. ‘싶-’ 구문이 인용 구문이라면 왜 인용 조사(소위 인용 보문자)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다. ‘싶-’이 인용 동사<sup>19)</sup>라면 문법적 의미가 아닌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고

18) 보조용언을, 내포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존성이 강한 용언 부류로 정의한다면 SEA 구문의 ‘싶-’도 엄연히 보조용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2.1.에서 살펴본 (1)의 조건 중 ‘비분리성 조건’과 ‘비개재성 조건’을 특히 중시하여도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의존성 외에도 공유하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이 많을수록 보조용언은 한 부류로 묶일 근거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이선웅(1995: 20~30)은 보조용언 검증을 위한 몇 가지 시험에서 SEA 용언들을 예외로 기술하고 있는데 SEA 용언의 성격을 재해석하여 이들을 보조용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면 기술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초점은 이들이 보조용언이 아님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인용 구문 논의에서 이들이 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부연해 둔다.

19) ‘싶-’이 인용 동사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싶-’은 어디까지나 형용사이자 동사가 아니며, ‘인용 형용사’라는 것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싶-’의 SEA 구문이 인용 구문이라고 주장하려는 본고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싶-’이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활용 양상이 형용사와 같다는 것에 근거할 뿐, 의미론적인 속성에서 동사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은 아니다. ‘싶-’이 ‘생각하-, 생각되-, 여겨지-’ 등의 동사와 자유롭게 교체될 수

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2.1.에서 우리는 ‘싶-’의 인용 구문이 직접 인용 구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싶-’ 구문은 단순히 직접 인용 구문이라고 하기에는 주저되는 면도 있다. 이필영(1995: 17~26)에서는 직접 인용 구문과 구별되는 간접 인용 구문의 특징으로 내포문의 완형 보문 형식, 수행 억양의 결여, 상대높임법과 문체법의 중화, 관점의 전이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내포문이 완형 보문 형식이라는 첫 번째 특징은 간접 인용 구문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외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에 대하여서는, ‘싶-’ 구문의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2.1.에서 확인한 바 있다. 앞의 (15)를 가져와 보자.

- (24) ㄱ. 영희가 집에 없나(ㄴ) 싶어서 그냥 갔지.  
 ㄴ.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ㄴ)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15)]
- (25) ㄱ. 철수는 “영희가 집에 없나(ㄴ)”라고 말하면서 대문을 들어섰다.  
 ㄴ. 철수는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ㄴ은 억양을, #은 휴지를 보인 것이다.)

(24)는 ‘싶-’의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25)의 직접 인용 구문에서 피인용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싶-’ 구문은 청자를 상징하지 않는, 화자의 내적 사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내포문으로 취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높임법의 중화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필영(1995: 20~21)에서처럼 ‘상대높임법과 문체법의 중화’를 하라체 어미 ‘-다, -느냐, -오라, -자, -마’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종결어미 형식의 내포문을 취하는 ‘싶-’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있는 것은 활용에서 동사적인 속성도 보이는 존재 형용사 ‘있-’이 ‘존재하-, 거주하-’ 등의 동사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싶-’이 형용사적인 활용을 하면서도 인용 동사 구실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싶-’ 구문이 직접 인용 구문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내포문에 감탄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26) 가. 안 뜨거(위)라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던 거예요. [= (20<sub>나</sub>)]  
 나.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싶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렸죠.  
 (27) 가. 철수는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울상을 지었다.  
 나. 철수는 이제 죽었다고 소리치며 울상을 지었다.

(26<sub>가, 나</sub>)에서 각각 ‘아’, ‘아이고’라는 감탄사가 ‘싶-’ 구문의 내포문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7<sub>가</sub>)에서 보듯이 직접 인용 구문과 통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7<sub>나</sub>)에서처럼 간접 인용 구문에는 감탄사가 나타날 수 없다(남기심 1973=1996 : 203).

그러나 관점의 전이의 문제를 검토해 보면, ‘싶-’ 구문은 언뜻 간접 인용 구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내포문 내의 대명사의 재귀화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 (28) [상황] 철수 : (속으로) “내 동생이 이기겠구나.”  
 가. 철수는 “내 동생이 이기겠구나” 싶겠다.  
 나. 철수는 자기 동생이 이기겠구나 싶겠다.  
 (29) [상황] 철수 : (소리내어) “내 동생이 이겼다.”  
 가. \*철수는 내 동생이 이겼다고 말했다.(다른 의미로 해석됨)  
 나. 철수는 자기 동생이 이겼다고 말했다.

(28<sub>가</sub>)은 ‘내’의 재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고, (28<sub>나</sub>)은 재귀화가 일어난 예이다. 두 문장의 문법성은 의심할 수 없으나, 재귀화가 일어난 (28<sub>나</sub>) 쪽이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29<sub>가, 나</sub>)은 간접 인용 구문에서 피인용문의 재귀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중시한다면 ‘싶-’ 구문은 간접 인용 구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내적 사유에 대한 인용은 그것이 직접 발화되지 못한 생각에 대한 인용이라는 사실 때문에 간접 인용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필영(1995 : 22)도 “철수는 자기 동생이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피인용문 대명사의 재귀화 현상을 주목하여 이를 간접

인용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sup>20)</sup> 내적 발화에 대한 인용일 때에는 ‘-구나, -지, -르까……’와 같은 다양한 종결어미가 간접 인용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경화(1995: 71)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내적 사유에 대한 인용(이 논문의 용어로는 ‘내적 인용’)에 대해서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구별이 가능하며 ‘내적 인용/외적 인용’의 분류와 ‘직접 인용/간접 인용’의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적 사유에 대한 간접 인용 구문이고,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며 잠 자리에 들었다.”는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 구문의 술어가 심리 동사이거나 독백으로 쓰인 화행 동사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간접 인용의 속성을 지니기도 하여(안경화 1995: 63), 저 위의 “철수는 자기 동생이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에서처럼 대명사가 재귀화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안경화(1995)에서는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을 ‘준-직접 인용 구문’에 넣고 있다. 이 논의를 따르면 ‘싶-’의 SEA 구문도 내적 인용이자 직접 인용의 성격을 띠는 ‘준-직접 인용 구문’의 한 예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볼 때 ‘싶-’의 SEA 구문은 기본적으로 직접 인용 구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명사의 재귀화는 ‘싶-’ 구문이 실제로 발화되지 않는 내적 사유의 직접 인용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위의 (28)에서 “내 동생이 이기겠구나.”라는 문장은 실제로 철수에 의해 발화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화자(즉 사유의 주체)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내 동생이 이기겠구나.”라는 문장이 존재하는 대신 “자기 동생이 이기겠구나.”의 형식으로 이미 화자의 입장에서 발화상의 중화가 일어난 상태로, 다소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제 (23)에서 제시한 두 번째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싶-’ 구문은 간접 인용 구문에 쓰이는 조사 ‘고’는 물론, 직접 인용 구문에 쓰이는 ‘이라고’, ‘하고<sup>21)</sup>’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20) 중세국어론 다룬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현희(1996)은 피인용문 내의 대명사의 재귀화를 간접 인용 구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싶-’ 구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너기-’ 구문을 간접 인용 구문과 맥이 닿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30) 가. \*덕순이는 그런 겁나는 말을 언제 했느냐고 싶게 배시시 웃고 있었다.  
나. \*이제 도착했겠다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 (31) 가. \*드디어 철수를 만나겠구나라고 싶었다.  
나. \*여기서 철수를 만나지 않나 하고 싶었다.

‘싶-’의 SEA 구문이 직접 인용 구문의 성격을 띠는 우리의 입장이 정당하다면, (30가, 나)에서 간접 인용의 조사 ‘고’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인용 구문에 사용되는 ‘이라고’의 경우는 어떠한가? 남기심(1973=1996:182)에서는 ‘이라고’가 내부적인 표현에는 쓰이지 못하고 대외적인 표현에만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고 김홍수(1990:50, 각주 22)에서도 인용 조사 ‘이라고’는 선행 피인용문을 계사 ‘이-’로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발화의 구체성, 현장성을 명제화, 추상화하는 효과를 보이며, 따라서 실제로 발화된 적이 없는 내적 사유에 대한 인용(이 논문의 용어로는 ‘내면 인용’)에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내적 사유에 대한 인용인 ‘싶-’ 구문에 ‘이라고’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하고’의 출현이 불가능한 것은 또다른 설명을 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싶-’ 구문과 관련한 통시적 사실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싶-’ 구문은 중세국어의 ‘식브-’ 구문을 이어 받은 것이다. 김정아(1985)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는가’ 구문은 사유 동사 구문(‘너지-, 스랑흐-, 식브-’)과 수행 동사 구문(‘니르-, 문-’)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동사들은

21) ‘하고’를 인용 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예컨대 남기심(1973=1996:186)은 ‘하고’가 ‘하-’의 연결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고’를 인용 조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사처럼 뒷말에 붙여 쓰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고’의 문제는 좀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이를 인용 조사의 하나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2) 단 “나는 이젠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다.”(남기심 1973=1996:182), “철수는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이필영 1985:41)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라고’의 분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라고’가 명백한 간접 인용 구문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사유 자체를 표현하지만 후자의 동사들은 사유의 결과를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내포문과 모문 동사 사이의 ‘햏의 개재 여부로도 나타나다.

- (32) ㄱ. 미은 것과 안존 거시 비출 자불가 식브도소니(두시언해 초간본 16 : 46)  
 ㄴ. 사르민가 사름 아닌가 햏야 疑心드뵈니(월인석보 1 : 15)

(32ㄱ)은 ‘식브-’의 사유 동사 구문을, (32ㄴ)은 ‘의심드뵈-’의 수행 동사 구문을 보인 것이다. (32ㄱ)의 사유 동사 구문은 모문 동사와 내포문의 관계가 밀착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32ㄴ)의 수행 동사 구문과는 달리 ‘햏야가 개재되지 않는다.’<sup>23)</sup>

요컨대 중세국어의 ‘식브-’는 ‘-나가, -르가, -고저’를 내포문 어미로 취하는 구조만을 가지는,<sup>24)</sup> ‘햏야의 개재를 알지 못하는 용언이었다. ‘햏야가 개재되지 않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식브-’와 내포문 종결어미와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었고 ‘-고저 식브-’ 구성은 ‘-고 싶-’의 보조용언 구성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햏야가 발달하여 현대국어의 인용 조사 ‘고, 하고’로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동훈 1995 : 112). ‘식브-’가 ‘햏야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양한 내포문 종결어미를 취하게 된 현대국어에서도 ‘하고’의 출현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25)</sup>

마지막으로 (23)에서 제시한 세 번째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싶-’은 전통적으로 보조용언으로 취급되었으므로 ‘희망’이나 ‘추측’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SEA 구문의 ‘싶-’이 보

23) 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96, 1994 : 7장)도 참조된다.

24) 손세모들(1995 : 155)에서는 ‘싶-’이 근대 이후 다양한 통사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나듯 싶-’의 형식도 18세기에 출현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25) 또 다른 사유동사인 ‘너기-’는 현대국어의 ‘여기-’로 이어지는데 피인용문을 취할 경우 ‘하고’의 개재를 봉쇄하지는 않는다.

ㄱ. 철수는 여기로 오지 않을까 여겨진다.

ㄴ. 철수는 여기로 오지 않을까 하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고’가 없는 (ㄱ)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스랑햏-’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확인해 볼 길이 없다.

조용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싶-’이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야 할 책임을 안은 셈이다. ‘싶-’은 단독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휘적 의미가 상당히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SEA 구문의 ‘싶-’이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고 싶-’에 나타나는 ‘싶-’의 대당 본용언이라고 주장한다.<sup>26)</sup>

첫째, 2.1.에서 본 바와 같이 SEA 구문에서 ‘싶-’은 다른 어휘적 용언과 교체될 수 있다.

- (33) 가. 차라리 잘 됐다 싶었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나.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지만/여겼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 (34) 가.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나.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35) 가. 나는 오래 오래 살고 싶다.  
       나. \*나는 오래 오래 살고 생각된다.
- (36) 가. 비가 올 듯/성싶다.  
       나. 비가 올 ??듯/성 생각된다.

(33), (34)는 ‘싶-’이 SEA 구문에서 ‘생각하-, 여기-, 생각되-’ 등과 교체되어도 별다른 의미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이는 (35), (36)에서 보듯이 ‘-고 싶-’, ‘-ㄴ/르 듯/성 싶-’ 구성이 다른 어휘적 용언과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35), (36)의 ‘싶-’은 이미 보조용언으로 발달한 것이어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둘째, 국어에서 시제·상·양태 등 문법적 의미는 부정의 작용역에 들지

26) 김홍수(1983: 157)은 ‘싶-’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면서도 그 어휘 의미의 실재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27) ‘-고 싶-’은 중세국어의 ‘-고져 식브-’을 이어받은 것인데 이 때의 ‘식브-’는 ‘너지-, 브라, 願히’ 등과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즉 이 시기 ‘-고져 식브-’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가. 2장 우르고져 식브니(두시언해 초간본 10: 28)

나. 漸漸 저근 비물 노코져 너기노라(두시언해 초간본 14: 8)

않는데<sup>28)</sup> SEA 구문의 ‘싶-’의 의미는 부정될 수 있다.

- (37) 가. 스코어가 2:0이 될 때 이기겠다 싶었다.  
 나. 스코어가 2:0이 될 때까지도 이기겠다 싶지는 않았다.  
 (38) 가.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다.  
 나.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37가)의 ‘싶-’이 만약 ‘추측’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부정되어도 그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어 ‘못 이기겠다고 추측했다’는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37나)은 ‘못 이기겠다’고 추측한 것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싶-’의 의미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38가)은 부정되어도 ‘-ㄴ 것 같-’이 가지고 있는 ‘추측’의 문법적 의미는 유지되어 ‘비가 안 올 것으로 추측된다’의 의미로 해석된다(38나). 이러한 사실들은 ‘싶-’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이고 ‘-ㄴ 것 같-’의 의미는 문법적 의미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sup>29)</sup>

이상에서 ‘싶-’의 SEA 구문이 인용 구문으로서 가지는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싶-’의 SEA 구문은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이라는 것, 인용 조사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싶-’과 관련한 통시적인 사실 때문이라는 것, SEA 구문의 ‘싶-’은 어휘적 의미를 가진 용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요컨대 ‘싶-’의 SEA 구문은 ‘유표적인 보조용언 구문’이 아니라 ‘유표적인 인용 구문’인 것이다.

28) 장경희(1985:11)에도 양태가 부정의 작용역에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언어에서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어의 양태 조동사(modal auxiliary)의 의미는 부정되기도 한다.

29) 기존의 사전류의 기술과는 달리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에서는 SEA 구문의 ‘싶-’과 ‘-고 싶-’ 구성의 ‘싶-’을 구별하여 전자를 형용사로, 후자를 보조형용사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자를 후자의 대당 본용언으로 간주하는 본고의 관점과 일치한다.

### 3. 종결어미+‘하-, 보-’ 구문

#### 3.1. 종결어미+‘하-’ 구문의 성격

이 절에서는 ‘싶-’ 구문과 더불어 SEA 구문으로 다루어져 왔던 ‘하-’ 구문을 검토해 본다.

- (1) ㄱ. 영화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한다.
- ㄴ. 철수는 죽은 것이 아닐까 한다.(엄정호 1990 : 16)
- ㄷ. 저는 이만 가 볼까 합니다.

엄정호(1990 : 15), 이선웅(1995 : 53)에서는 ‘하-’의 SEA 구문은 ‘-ㄴ가(-나), -ㄴ까’ 만을 내포문 종결어미로 취하며 활용에 있어서의 제약도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SEA 구문의 의미론적 특성을 ‘희망’이나 ‘추측’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도달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싶-’의 SEA 구문의 의미가 ‘추측’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본고의 입장에서는 ‘하-’의 SEA 구문이 취할 수 있는 내포문 종결어미는 ‘싶-’이 취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활용에서 제약을 가지는 것 같지도 않다.

- (2) ㄱ. 드디어 철수를 만나는구나 하며 달려나갔다.
- ㄴ. 그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랴 하는 생각으로 그냥 승락을 해 버렸다.
- ㄷ. 이 시간에야 집에 들어 왔겠지 하여 전화를 걸었다.
- ㄹ. 아 뜨거(위)라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왔던 거예요.
- ㅁ.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해서 연락을 안 한 것 뿐이야.
- ㅂ. 나는 제발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했다.

(2)는 2.1.에서 든 ‘싶-’ 구문의 예문에 ‘싶-’ 대신 ‘하-’를 사용하여 만들어 본 것이다. ‘싶-’과 같이 ‘하-’도 다양한 내포문 종결어미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의 예가 (1)의 예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의 SEA 구문을 ‘하-’가 이끄는 일반적인 인용 구문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 (3) ㄱ. 나는 철수가 과연 올까 했다.(이필영 1995 : 52)  
 ㄴ. 철수는 비가 오는구나 했다.(이필영 1995 : 36)  
 ㄷ. 철수는 “영희가 왔어요” 했다.(이필영 1995 : 41)

(3ㄱ)은 엄정호(1990)의 SEA 구문의 범주에 드는 문장인데 이필영(1995 : 52)에서는 인용 구문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3ㄴ)의 ‘하-’는 ‘싶-’과도 교체될 수 있는 것인데 역시 이 논의에서 인용 구문으로 다루어진다. (3ㄷ)은 생각의 인용이 아닌 실제 발화의 인용이라는 점만 다를 뿐 (3ㄱ), (3ㄴ)과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다.

본고는 문제의 ‘하-’ 구문이 ‘싶-’ 구문과 유사한 직접 인용 구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또다시, SEA 구문으로 불리어 왔던 (1)의 예들이 인용 조사의 통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 (1) ㄱ. \*영희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하고/라고 한다.  
 ㄴ. \*철수는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라고 한다.(엄정호 1990 : 16)  
 ㄷ. \*저는 이만 가 볼까 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용 구문이라도 ‘하-’를 인용 동사로 취하는 경우에는 인용 조사 ‘하고’의 통합이 불가능하며(이필영 1995 : 36), 그것도 내적인 사유에 대한 인용일 경우에는 ‘이라고’의 통합마저 불가능하다.

- (4) ㄱ. 철수는 “이제 됐어” \*하고/라고 하면서 뛰어 나갔다.  
 ㄴ. 철수는 “이제 됐어” 하면서 뛰어 나갔다.  
 (5) ㄱ. \*영희는 속으로 “큰일 났네” 하고/라고 하는 듯한 표정이다.  
 ㄴ. 영희는 속으로 “큰일 났네” 하는 듯한 표정이다.

(4ㄱ)은 인용 동사가 ‘하-’일 때 ‘하고’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4ㄴ)과 같이 인용 조사가 아무것도 통합되지 않은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다. (5ㄱ)으로부터 ‘하-’ 동사가 내적인 사유를 인용할 때에는 ‘하고’는 물론 ‘라고’도 통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역시 (5ㄴ)에서 보듯이 인용 조사가 통합되지 않은 문장이 자연스럽다. 즉 ‘하-’의 SEA 구문이 인용 조사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인용 구문이 아닌 특수한 구문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하-’의 SEA 구문은 ‘하-’를 인용 동사로 하는 인용 구문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의 인용 구문 중 일부 예를 떼어 SEA 구문, 즉 보조용언 구문으로 다루는 것은 본고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3.2. 종결어미+‘보-’ 구문의 성격

이 절에서는 ‘보-’의 SEA 구문의 성격을 검토해 본다.

- (6) 가. 영희는 벌써 논문을 다 썼나 보더라.  
나. 이렇게 하면 철수가 밥을 먹을까 보다.(엄정호 1990 : 15)<sup>30)</sup>  
다. 이렇게 하면 철수가 밥을 먹을까 봐서, 아예 밥상을 다 차려 놓은 거야.  
르. 내가 철수를 한 대 때려 줄까 보다.

‘보-’의 SEA 구문의 유형은 (6)의 문장들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종결어미에 보조용언이 통합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SEA 구문은 ‘보-’ 구문밖에 없다고 본다. ‘보-’ 구문은 앞서 살펴본 ‘싶-, 하-’ 구문과 상통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sup>31)</sup> 차이나는 점도 많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의 SEA 구문은 문두에 내포문의 요소가 아닌 어떠한 다른 명사구도 허용하지 않는다(엄정호 1990 : 23). 즉 ‘싶-’과 같이 모문의 주어가 별도로 나타날 수 없다.

- (7) \*나는 영희가 논문을 다 썼나 보다.  
(8) 나는 영희가 논문을 다 썼나 싶다.

‘보-’ 구문인 (7)은 ‘싶-’ 구문인 (8)과는 달리 모문의 주어가 외현하지

30) 필자에게는 매우 어색한 문장이지만 일단 연구자의 직관을 존중하기로 한다.

31) 비개재성 조건, 비분리성 조건을 준수하는 것, 내포문에 일부 선어말어미의 통합이 가능한 것 등이 공통점이다. 부정의 작용역과 관련된 시험은 ‘보-’의 활용 형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못한다. 이는 '보-'의 SEA 구문이 재구조화에 의한 단문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보-'의 SEA 구문은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 없고 내포문과 모문 동사 사이에 휴지도 개재될 수 없다.

- (9) ㄱ. \*나는 낮잠이나 잘까(\ノ) 보다.  
 ㄴ. \*영희는 어제 지각했나 # 보다.  
 (10) ㄱ. 영희가 집에 없나(\ノ)# 싶어서 그냥 갔지.  
 ㄴ.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ノ) #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2장의 (15), (24)]  
 (\ノ는 억양을, #은 휴지를 보인 것이다.)

(9)에서처럼 '보-' 구문은 내포문에 수행 억양이 걸릴 수도 없고 내포문과 모문 동사 사이에 휴지가 개재될 수도 없다. 이는 (10)에서 보이는 '싶-' 구문의 특성과는 다른 면이다.

셋째, '보-' 구문에서는 간격화가 불가능하다.

- (11) ㄱ. 영희는 논문을 다 썼나 보다. 철수도 이제 학위를 받았나 보다.  
 ㄴ. \*영희는 이제 논문을 다 썼나, 철수도 이제 학위를 받았나 보다.  
 (12) ㄱ. 영희는 서울 가서 잘 살겠지 싶었다. 철수도 성공했겠지 싶었다.  
 ㄴ. 영희는 서울 가서 잘 살겠지, 철수도 성공했겠지 싶었다.[=2장의 (17)]

(11ㄴ)은 '보-' 구문에서 간격화가 불가능함을 보인 것이다. 이는 (12)에서 보인 '싶-' 구문과 다른 점이며, 일반적인 보조용언과 통하는 특성이다.

넷째, 위의 (6)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의 SEA 구문이 요구하는 내포문 종결어미는 '-ㄴ가(-나), -ㄴ까'에 한정된다.

- (13) ㄱ. \*영희가 갔겠다 보다.  
 ㄴ. \*영희가 갔겠지 보다.  
 ㄷ. \*영희가 갔구나 보다.  
 ㄹ. \*영희가 설마 갔으랴 보다.  
 (14) ㄱ. 영희가 갔겠다 싶다.  
 ㄴ. 영희가 갔겠지 싶다.



- ㄷ. 영희가 갔구나 싶다.
- ㄹ. 영희가 설마 갔으랴 싶었다.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싶-’ 구문이 다양한 종결어미가 이끄는 문장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13)의 ‘보-’ 구문은 여타 보조용언처럼 특정한 어미만을 요구하는 강한 어휘적 제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SEA 구문에서 ‘보-’는 형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

- (15) ㄱ. 철수가 갔나 부다.(엄정호 1990 : 10)
- ㄴ. (방언) 철수가 갔는갑다.

(15ㄱ)은 ‘보-’가 SEA 구문에서 ‘부-’로 실현되기도 함을 보인 것이다. (15ㄴ)은 ‘보-’의 SEA 구문이 방언에서 선행 어미와의 융합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SEA 구문의 ‘보-’는 어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형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토대로 우리는 ‘보-’의 SEA 구문이 보조용언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는 ‘보-’의 SEA 구문 역시 ‘싶-’, ‘하-’ 구문과 같은 내적 사유에 대한 인용 구문을 기원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김정아(1998 : 44)에서 제시된 예이다.

- (16) ㄱ. 브즈러니 受苦롭다 보느니(월인석보 14 : 79)
- ㄴ. 詩란 子建이샤 親近히리로다 보다라(두시언해 초간본 19 : 1)

김정아(1998 : 44)에서는 이 때의 ‘보-’가 완형 보문으로 표현된 사유대상에 대한 사유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가시적 대상에 대한 지각 행위가 추상적인 대상에까지 확대되어 ‘보-’가 사유 동사적 용법을 갖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구문이 ‘보-’의 보조용언 구문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32)</sup>

---

32) 이러한 논의가 완전해지려면 보조용언 구문의 ‘보-’가 형용사적인 활용을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한 통시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존의 논의에서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으로 다루어졌던 ‘싶-’의 SEA 구문은 보조용언 구문이 아니라 인용 구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② ‘싶-’의 SEA 구문은 내적 사유에 대한 직접 인용 구문으로서 인용 조사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이 때 ‘싶-’은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인용 동사 구실을 한다.
- ③ ‘하-’의 SEA 구문도 인용 동사 ‘하-’가 이끄는 인용 구문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다.
- ④ ‘보-’의 SEA 구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보-’ 구문은 인용 구문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미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고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싶-, 하-’의 SEA 구문이 인용 구문이라고 하면서도 인용 구문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정밀하지 못하였다. 특히 ‘싶-’ 구문에 인용 조사의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보-’ 구문의 경우에는 문법화의 과정에 대한 통시론적 증거들이 보강되어 본용언 ‘보-’와는 달리 보조용언 ‘보-’가 형용사적인 활용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주장에는 보조용언 구문 혹은 인용 구문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에 관한 범주화의 문제가 걸려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보조용언 구문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인용 구문 역시 일종의 보조용언 구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동사구 보문을 취하는 구문으로 인용 구문과 보조용언 구문이 따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SEA 구문이 인용 구문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만족하려고 한다.

## 참고문헌

- 권재일(1986), 「의존동사의 문법적 성격」, 『한글』 194, 한글학회.
- 김정아(1985) 「15세기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연구』, 태학사.
- 김지은(1997),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홍(1993), 「국어 부사형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 특성」,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김홍수(1990), 「내면 인용 구문의 해석」, 『주시경학보』 6, 탑출판사.
- 남기심(1973), 『국어 원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남기심(1996)에 실림]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연구 I : 국어 통사론의 문제』, 태학사.
- 박재연(예정), 「독백과 독백문 종결어미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성낙수(1987), 「이른바 도움그림씨 ‘싶다’의 연구」, 『한글』 196, 한글학회.
- 손세모들(1995), 「‘-고 싶-’의 의미정립 과정」, 『국어학』 26, 국어학회.
-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신선경(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 분류」, 『국어연구』 73, 국어연구회.
-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구문의 연구 :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명철(1999), 「보문의 개념과 체계」, 『국어학』 33, 국어학회.
-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호(1999), 「동사구 보문의 범위와 범주」, 『국어학』 33, 국어학회.
-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국어연구회.
-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82), 「국어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국어연구회.
-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논문집』 3, 한신대.
- 이현희(1988),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24 : 3,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국어연구회.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 : 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 3, 서울대 어학연구소. [임홍빈(1998)에 실림]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방송대 출판부.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I :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태학사.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차현실(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구조」, 『언어』 9 : 2, 한국언어학회.
- 차현실(1986), 「양상술어(modal predicate)의 통사와 의미: 미확인 양상술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8,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 최재희(1992), 「'싶다' 구문의 통사구조 분석」, 『국어학연구백년사 I』, 일조각.
- 최재희(1997), 「국어 의존동사 구문의 통사론: '싶다, 보다, 하다'를 중심으로」, 『한글』 232, 한글학회.
- 최현배(1937/1955),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현숙(1988), 「'Restructuring' in Korean」, 『어학연구』 24 : 4, 서울대 어학연구소.